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축 사



2022. 10. 27.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님,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오늘 한국법학원이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
라는 주제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법학원은 1956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로 성장
하며 법치주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이라는 설립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법학원이
지난 60여 년간 각종 법학회의 창립에 앞장서고, 학술대

회의 개최,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지능정보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축적
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
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을
계기로 우리의 생활이 플랫폼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디지털시대로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그것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법률가대회의 주제인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새로운 혁신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규범적 의미, 이러한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디지털사회로의 변화에 직면하여 기존의 법적 논의를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에서 재구성하는 시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률가 회원 여러분!

디지털기반 첨단기술이 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침해, 사회의 양극화 심화 등의 헌법적 문제도 제기됩니다. 따라서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대비한 법적 시스템의 구축은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하는 법적 규율은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적 책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때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시하는 임무가 우리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이 법제도적으로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소외와 갈등에 귀 기울여 기본권 보호의 그늘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법률가대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법적 과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이자 새로운 조화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법률가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 법학원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